

선생님의 사랑

작성일: 2012년 3월 17일

작성자: 배수빛

기도를 하기 위해 감람산에 갔을 때 주님께서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혈서와 같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.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너희는 너희 선생의 혈서와 같은
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있다.
너희 선생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.
너희 목숨
하나밖에 없는 애인의 목숨처럼 부둥켜안고
절대 죽지 않고
영원히 주님의 신부 삼아 달라고
뒹굴며 애원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그 간절함에
내 마음이 다 녹는구나.

너희 선생의 그 큰 사랑을 안다면
어찌 너희가 그 사랑 부족하다 할 자 있느냐.
철이 없어 그 사랑에 아직 소경이니
그 큰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는구나.
인류를 품은 사랑
지구를 안은 사랑
하나님의 슬픈 마음 자락까지 끌어안은 사랑
너희 선생 그 마음 보자기로
천주와 우주까지 다 담았으니
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 되어
주일 말씀, 수요 말씀으로 태어난다.
사랑은 잠언이며
사랑은 말씀이다.
말씀을 먹는 자
선생의 극진한 사랑을 먹는 자니
말씀은 사랑으로 빛은 사랑 결정체다.
말씀을 먹은즉 사랑체로 변화되니
사랑의 말씀이요
사랑 그 자체로다.

나의 사랑아,
말씀이 곧 사랑인 것을 알겠느냐.

(네, 성삼위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말씀으로
잉태되어 나타나네요.)

너희 선생,
말씀을 한 손가락씩 떠먹이듯
너희를 먹이며
사랑에 눈이 떠 온전한 주님 신부되기를
간절히 소원하니
날마다 사랑 사랑으로
사랑체 단장이다.

그 사랑,
세상에 없는 사랑,
하나님이 원하시던 성경의 바로 그 사랑,
고린도 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남는 바로 그 사랑,
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하나님 근본의 사랑.

선생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
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넉넉히 알아주시며
화답해 주시며 교통하시니
인류에 끊어졌던 참 사랑의 물줄기가
수로가 범람하여 진정한 사랑의
에텐동산화되도다,

너희 선생의 사랑
하나님을 닮은 사랑
내 품의 사랑
고이 내가 키운 사랑
생명 귀중의 사랑
영원 값의 사랑
세상 생명을 다 산 사랑
죽은 자도 살리는 사랑
미친 자도 정상으로 돌리는 사랑
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사랑
고귀한 내 사랑
천하에 없는 나를 빼닮은 사랑
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
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
늘 변함없는 사랑
천상천국 최상급의 고차원의 사랑
만물도 다 품는 생명 사랑의 사랑
하나님도 감복한 하늘 사랑
하나님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한 감동의 사랑
성령님의 마음을 짝 채운 사랑

예수님의 마음을 붙든 지고지순의 사랑
영원한 그 사랑에
지구의 안식이라.

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여 시대의 십자가를 기꺼이 능
히 지고 가는 너희 선생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다